

수능특강 56쪽



고산구곡가 | 이이

고산 구곡담(高山九曲潭)을 사람이 모르더니
터 닦아 집 지으니 벗님네 다 오신다
어즈버 무이(武夷)를 상상하고 학주자(學朱子)를 하
리라

<제1수>

▶ [제1수] 고산에 대한 소개와 학문에 대한 지향

일곡(一曲)은 어디인가 관암(冠巖)에 해 비친다
들판에 안개 걷히니 먼 산이 그림이로다
송간(松間)에 술동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

<제2수>

▶ [제2수] 관암의 아름다움

이곡(二曲)은 어디인가 화암(花岩)에 봄이 늦었구나
푸른 물에 꽃을 띄워 야외(野外)로 보내노라
사람이 승지(勝地)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떠리

<제3수>

▶ [제3수] 화암의 봄 경치

삼곡(三曲)은 어디인가 취병(翠屏)¹⁾에 잎 퍼졌다
푸른 나무에 산새는 아래위로 지저귄 때
반송(盤松)²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풍경 이에 더
없어라

<제4수>

▶ [제4수] 취병의 여름 풍경

사곡(四曲)은 어디인가 송애(松崖)³⁾에 해 넘는다
못 속의 바위 그림자 온갖 빛이 잠겼구나
임천(林泉)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에 겨워 하노라

<제5수>

▶ [제5수] 송애의 석양 모습

오곡(五曲)은 어디인가 은병(隱屏)이 보기 좋다
물가에 세운 집은 깨끗함이 끝없구나
이 중에 강학(講學)도 하려니와 영월음풍(詠月吟風)
하리라

<제6수>

▶ [제6수] 은병정사에서의 생활

육곡(六曲)은 어디인가 조협(釣峽)⁴⁾에 물이 넓다

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가

황혼(黃昏)에 낚싯대 메고 달빛 받아 돌아온다

<제7수>

▶ [제7수] 조협에서의 낚시하기

칠곡(七曲)은 어디인가 풍암(楓岩)에 가을빛 짙구나
맑은 서리 얇게 치니 절벽이 비단 빛이로다
찬 바위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

<제8수>

▶ [제8수] 풍암의 가을 경치

팔곡(八曲)은 어디인가 금탄(琴潭)⁵⁾에 달이 밝다
빠어난 거문고로 곡조 맺을 연주하니
옛 가락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

<제9수>

▶ [제9수] 금탄의 달밤

구곡(九曲)은 어디인가 문산(文山)에 해 저문다
기암괴석(奇巖怪石)이 눈 속에 묻혔구나
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

<제10수>

- 이이, <고산구곡가(高山九曲歌)>

▶ [제10수] 문산의 겨울 모습

[어휘 풀이]

1) 취병 - 푸른 병풍 같은 절벽. 2) 반송 - 키가 작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. 3) 송애 - 소나무가 자리 잡은 벼랑. 4) 조협 - 낚시하는 골짜기. 5) 금탄 -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한 여울.



핵심점점

<고산구곡가>

시구풀이

• 고산 구곡담(高山九曲潭)을 사람이 모르더니

- 아홉 번 굽이가 저서(九曲), 그 위로 흐르는 물과(潭) 함께, 빠어난 경치를 자아내는 계곡인 '고산구곡담'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니
- 중의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으로, 사람들이 고산에 있는 석담의 뛰어난 경치를 모르므로 알려주고 싶다는 뜻도 있지만 학문수양의 방법이나 태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학문에 정진하는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성리학자의 바람도 담겨 있다.

• 터 닦아 집 지으니 벗님네 다 오신다

- 내가 풀을 베어 내고 집을 지어 살 곳을 정하니, 그때야 벗들이 다 이곳을 찾아오는구나
- **어즈버 무이(武夷)를 상상하고 학주자(學朱子)를 하리라**
- 중국의 성리학자인 주자가 정사를 짓고 학문에 정진했다는 곳인 '무이'를 생각하며 주자를 공부하리라.
- '고산구곡가'의 궁극적 지향은 무이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학문에 매진했던 주자의 삶을 계승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. 이는 '고산구곡가'가 단순히 자연의 흥취를 노래하는 시조가 아니라 즉 학문을 생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조임을 나타낸다.
- **일곡(一曲)은 어디인가**
- 첫 번째 굽이는 (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는 첫 번째 계곡은) 어디인가
- **관암(冠巖)에 해 비친다**
- 갖의 위로 블록 올라온 부분처럼 생긴 바위가있다 하여 '관암'이라 이름이 붙은 지역에, 아침 해가 비치는도다.
- 본 초장의 형식을 살려보면 화자가 스스로 묻고('어디인가') 답하는('~다') 형식 → 유사한 통사구조를 사용하여 음운적, 통일성 부여하고 있다.
- **들판에 안개 걷히니 먼 산이 그림이로다**
- 잡초가 무성한 저 벌판에 안개가 걷히니, 눈앞의 먼 곳과 가까운 곳의 경치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기도
- **송간(松間)에 술동이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**
- 소나무 사이에, 좋은 술이 들어 있는 술동이를 놓고, 벗들이 찾아온 것처럼 바라보노라.
- 아침의 풍광을 바라보며, 술동이를 꺼내어 놓고, 자신을 찾아 올 벗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.
- **이곡(二曲)은 어디인가 화암(花岩)에 봄이 늦었구나**
- 두 번째 굽이진 계곡은 어디인가. 저 화암 주변의 늦봄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도다
- '화암'은 지명이자 '꽃이 피어나는 바위'를 뜻하기도 하기 에, 중의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.
- 본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살펴봤을 때, 각 연 안에서의 시상 흐름에 있어서는 첫 행에서 화자의 내면이 아닌 화자의 외부세계라 할 수 있는 '자연의 경치'를 표현하고 있고, 시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는 시간의 흐름과 같은 별다른 기준 없이 '일곡', '이곡', '삼곡' 등 '승경지'를 그냥 차례로 나열하고 있다.
- **푸른 물에 꽃을 띄워 야외(野外)로 보내노라**
- 저 푸른 물결에 꽃을 띄워서, 멀리 들판으로 보내노라
- 현재 화자는 자연에 은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세속의 공간일 것이다.
- 도연명의 '무릉도원'을 연상케하는 구절로, 계곡의 절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다.
- **사람이 승지(勝地)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**

- 사람들이 이처럼 경치 좋은 곳을 알지 못하니, 이를 알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→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
- 화자가 '곳'을 벽파에 띄운 이유가 다른 아닌 자신이 대하고 있는 좋은 경치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.
- **삼곡(三曲)은 어디인가 취병(翠屏)¹⁾에 잎 퍼졌다**
- 세 번째 굽이진 계곡은 어디인가. 푸른빛이 도는 병풍 같은 절벽이 있어서, '취병'이라 이름 붙은 지역에(혹은 '저 푸른 절벽에'), 푸른 잎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.
- **푸른 나무에 산새는 아래위로 지저귄 때**
- 푸른 잎이 우거진 나무(녹수) 위에 있는 저 산새들이 오르 아래 위에서 지저귀는데
- 나무의 잎이 우거지는 때는 다른 아닌 '여름'이기에, 본수가 '여름 경치의 아름다움'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'잎이 퍼진 취병', '취병 둘레에 있는 녹수'를 통해 '시각 이미지'를, '하상기음'을 통해 '청각 이미지'를 연상할 수 있다.
- **반송(盤松)²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풍경 이에 더 없으라**
- 작고 옆으로 퍼진 소나무가(반송이) 시원스레 바람에 흔들리니 딱히 여름 같지가 않구나 → 여름 같지 않게 시원하다
-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작은 소나무를 흔들어 놓는다.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통해 화자가 여름의 더위를 잊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섬세한 심정이 잘 드러난 있다.
- **사곡(四曲)은 어디인가 송애(松崖)³⁾에 해 넘는다**
- 네 번째 굽이진 계곡은 어디인가. 소나무가 우거진 벼랑이라 하여 '송애'라 불리는 저 곳에 해가 저물어 가는구나.
- **못 속의 바위 그림자 온갖 빛이 잠겼구나**
- 못 속에 비친 바위의 그림자 속에는 석양의 온갖 노을 빛들이 아름답게 잠겨 있구나.
- 해질녘 노을 진 하늘의 붉은 빛들이 송애의 바위에 아름답게 비치는 가운데, 빛나는 바위의 모습이 바위 근처 못의 표면에 은은하게 비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- **임천(林泉)이 깊을수록 좋으니 흥에 겨워 하노라**
- 자연이라는 것은 깊은 곳에 있을수록 좋은 것이니(깊은 산속이다보니 비로소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니) 마음 속에서 가득 일어나는 흥을 어찌할 수가 없도다.
- **오곡(五曲)은 어디인가 은병(隱屏)이 보기 좋다**
- (아름다운 경치를 자아내는) 다섯 번째 굽이진 계곡은 어디인가. 은은하게 가려진 저 벼랑의 경치가('은병이') 참으로 아름답도다.
- '은병'의 '은(隱)'은 '숨길 은'이고 '병(屏)'은 '병풍 병'이다. 따라서 '은병'은 '감춰진 병풍'처럼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 절벽을 가리킨다.
- **물가에 세운 집은 깨끗함이 끝없구나**
- ('은병'이 바라다 보이는 이) 물가에 지어 놓은 이 집이

(이 집과 주변의 경치가) 참으로 맑고 깨끗하구나.

• 이 중에 강학(講學)도 하려니와 영월음풍(詠月吟風) 하리라

- 맑고 깨끗한 기운이 넘치는 이 수변정사에서 지내는 동안 학문을 닦고 연구하면서, 맑은 달과 맑은 바람을 소재로 삼아 시를 지으며, 흥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리라

- '영월음풍'은 '음풍영월'이라고도 하는데, '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논다'는 뜻이다. 본 수의 '강학'을 통해, 화자가 소쇄한 수변 정사의 기운 속에서 '영월음풍'하며 사는 삶이 학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• 육곡(六曲)은 어디인가 조협(釣峽)⁴⁾에 물이 넓다

- 여섯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. 낚시하기 좋은 골짜기라 하여, '조협'이라는 이름이 붙은 저 골짜기에 물이 넓게도 흐르는 도다.

•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는가

- 나와 저 물고기 중 누가 더 흥에 겨운지가 구분이 되지를 앓는구나.

- '고기'는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기에, 화자의 흥에 겨운 마음이 '고기'에 투영되어 표현된 것이다.

• 황혼(黃昏)에 낚싯대 메고 달빛 받아 돌아온다

- 해질녘에 흥분하니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뒤에 비친 달을 벗으로 삼아, 한가롭게 집으로 돌아오노라.

• 칠곡(七曲)은 어디인가 풍암(楓岩)에 가을빛 질구나

- 일곱 번째 굽이는 어디인가. 풍암(단풍바위)에 가을빛이 좋구나.

- 화자는 풍암을 바라보고 있다.

• 맑은 서리 얹게 치니 절벽이 비단 빛이로다

- 깨끗한 서리가 얹게 내리니 절벽이 수놓은 비단 같구나.

• 찬 바위에 혼자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

- 한암(바람 바위)에 혼자 앉아 집을 잊어버렸노라.

- '한암'은 바람바위, 다시 말해 밖으로 노출돼서 전망하기 좋은 바위를 가리킨다. '집'은 인간 세계다. 정리하면 '한암에서 바라보는 가을풍경'이다.

• 팔곡(八曲)은 어디인가 금탄(琴灘)⁵⁾에 달이 밝다

- 여덟 번째 굽이가 어디인가. 금탄(거문고 소리를 여울)에 달이 밝다.

• 빼어난 거문고로 곡조 몇을 연주하니

- 좋은 거문고를 골라 무릎에 놓고, (저 금탄의 소리에 맞춰) 아름다운 노래를 몇 곡조 연주를 해보지만

• 옛 가락 알 이 없으니 혼자 즐겨 하노라

- 격조 높은 옛 가락을 알 사람이 없으니 혼자서 즐기노라

- '혼자여서 섭섭하다'는 느낌이 아니라 '혼자여서 즐겁다'고 하지 않느냐. 정리하면 '금탄에서의 달밤'이다.

- 본 작품 각 수 종장의 마무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'~하리라' 혹은 '~하노라'로 종결되고 있는데, 이러한 종결

어미는 '격정적(감정이 강렬하고 갑작스러워 누르기 어려운) 어조'나 '결연한(움직일 수 없을 만큼 확고한) 의지'와는 관련이 없는, '다짐이나 추측(~리라)' 혹은 '자신의 행동에 대한 선언이나 감동(~노라)' 등의 의미를 지닌다.

• 구곡(九曲)은 어디인가 문산(文山)에 해 저문다

- 아홉 번째 굽이는 어디인가. 문산에 한 해가 저물도다.

- 주인공은 '문산'이란 곳이다. '문산에서 맞이한 연말'이다.

• 기암괴석(奇巖怪石)이 눈 속에 묻혔구나

-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혔구나.

• 사람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

- '사람'은 속세 사람들이다. 그 사람들은 '눈 덮인 문산의 풍경'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모르는 있는 것이다.

☑ 특징

• 갈래: 연시조(전10수)

• 성격: 예찬적, 교훈적

• 유학자로서의 삶의 지향성이 중의적 표현과 독창적인 내용 속에 잘 반영됨.

• 한자어 사용이 두드러지고, 절제된 감정 속에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함.

• 계절의 흐름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

- 아침(1곡)에서 달방(8곡)에 이르는 하루의 시간적 순환, 봄(2곡)에서 시작하여 겨울(9곡)에 이르는 한 해의 질서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유기적으로 형상화되어 있음

- <2수>에서는 봄날 아침에 안개가 걷힌 들판과 '관암'의 아름다움을, <3수>에서는 늦봄 '화암'의 아름다움을, <4수>에서는 여름날 '취병'의 아름다움을, <5수>에서는 해질 무렵 '송애'에서 본 아름다움을, <6수>에서는 '은병'의 아름다움을 노래함

• ~은 어디까지 ~에 ~다	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	
• 푸른 물에 꽃을 띄우어 야외(野外)로 보내노라 • 사람이 승지(勝地)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디더리	• 대조법: 야외(속세) ↔ 승지(자연) • 영탄적 어조 : 세상 사람들에게 자연이 아름다움과 학문의 즐거움을 알리고 싶은 마음	
• 푸른 나무에 산새는 아래위로 지저귀는 때	강렬적 이미지들	형식
• 못 속의 바위 그림자 온갖 빛이 잠겼구나	상당한 전제	시각

✓ 고산구곡가의 '시각'



✓ 고산구곡가의 전체 짜임

서곡	주자학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의	제15곡	정사에서서의 강학과 영월을 통의 즐거움
제1곡	관암의 아침 경치	제16곡	조협의 야경
제2곡	화암의 늦은 봄 경치	제17곡	단풍으로 덮인 풍암에서의 흥 취
제3곡	취병의 여름 경치	제18곡	금탄의 흥겨운 물소리
제4곡	송애의 황혼경 경치	제19곡	문산에서의 아름다움과 세속 의 경박함

※ 이이, <고산구곡가(高山九曲歌)>

- 주제: 고산 아홉 굽이의 아름다움과 학문의 즐거움
- 해제: 수려한 자연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고, 학업을 양성하던 작자의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. 작자가 황해도 해주와 고산에 머물던 시기의 작품으로 주자의 <목미도가>를 본떠 새롭게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주변의 경관에 나름대로의 의미와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고, 자연의 즐거움과 학문에 대한 지향을 조화롭게 드러내고 있다.

• 구성

- [제1수] 고산에 대한 소개와 학문에 대한 지향
- [제2수] 관암의 아름다움
- [제3수] 화암의 봄 경치
- [제4수] 취병의 여름 풍경
- [제5수] 송애의 석양 모습
- [제6수] 은명정사에서서의 생활
- [제7수] 조협에서의 낚시하기
- [제8수] 풍암의 가을 경치
- [제9수] 금탄의 달밤
- [제10수] 문산의 겨울 모습

